

# 뜨랑 구엥, 피아노 선생

피아노 선생인 뜨랑 구엥(36)은 자신의 신앙의 길과 오후스 데이와의 만남에 대하여 프랑스 오후스 데이 홍보사무실에 말했다.

2005-11-3

제 부모님과 가족은 불교신자인 동생 하나를 제외하고는 무신자들입니다.

제가 가톨릭 신자가 된 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귀국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. 그전에 우편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희망을 알린 것 뿐이었으니까요.

그러나 놀랍게도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저를위해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사 두신 것 만 아니라 제가 미사 다닐 수 있게 집 근처에 있는 성당위치까지 알려 주셨습니다.

## 너무 아름다운 반응 아니었나요?

저의 어머니는 세례는 성화를 갈망한다는 표시라고 하셨어요.

아버지는 당신이 프랑스 유학시절에 만난 천주교 신자 학생 3 명과 친분을 아직도 유지하신다면 반가와 하셨고 그들과 루르데스 (Lourdes)성지도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자부심 있게 성모송을 낭송하시지 않으시겠어요! 그 후로 거기 돌아가 보시지 못하셨지만...

## 어떻게 신자가 되셨나요?

음학 학교에서 플루트 연주하는 친구와 자주 두엣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자기가 레바논을 위한 자선 사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요. 저도 바로 지원했고 그 기회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오피스 데이센터로 가게 됐어요.

활동을 준비하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고 그들의 기쁨과 정, 그리고 신앙이 제개 큰 인상을 남겼어요. 제가 느낀 신앙심은 말과 행동이 일치된 것 이었지요. 이런 여러 면들이 저를 생각하게 했고 천주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. 2000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지요.

## 그 후 오피스 데이에 입회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?

무엇보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답하고 싶었어요. 저는 세례 때도 그랬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.

이런 소속감은 저에게는 신앙적으로  
큰 기둥이 되기 때문이지요. 신앙의  
가르침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이 결  
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. 성화를 이루  
고자 하는 저의 하루하루를 오푸스  
데이가 지원 해주고 도와줍니다. 또  
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일생을  
바라보면 큰 용기를 얻습니다.

**다른 사람들이 오푸스 데이에 입회했  
다는 것을 압니까?**

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직접 말해주어  
이에 대해 알며 다른 사람들은 제가  
충실하게 살아 갈려는 보통 그리스도  
인이라고 생각합니다.

**교회 안에 여성들의 역할 대해서는  
어떻게 생각하시나요?**

교회 안에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중  
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교황님의 말씀을 응용 하자면 그것이  
결코 '보이지 않는다' 하더라도 말입

니다. 교황님이 자필 하신 책들을 보면 그런 점을 강조하셨습니다. 2004년 8월15일 마지막으로 루르데스를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: "성모님은 어느 작은 여자 아이에게 메시지를 주셨다. 그것은 현대 문화에 남아있는 물질주위와 세속화 때문이다.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은 여성들의 특권이기 때문이다. 투명한 것을 볼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".

**여성들은 지속적으로 가정을 돌보거나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 몰두하는데, 왜 남성들은 그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?**

맞아요. 왜 못 하는 걸까요? 여성들의 손길이 닿는 곳이 더욱 아름답지요. 여성은 그녀의 센스로 가정을 포근한 곳으로 변화 시키지요, 때로는 꽃 한 송이가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식사 한 끼가 될 수 있지요. 그 것은 여성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? 내 경우도 그

렁듯이 많은 여성들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. 여성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.

## 어떻게 오후스 데이가 당신의 '가족'이 되었나요?

오후스 데이 안에 존재 하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. 친구들 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나의 신앙생활과 정서에 꾸준함이 생겼다는 것 같아요.

## 당신의 일터에서 오후스 데이의 메시지는 어떻게 작용하나요?

항상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하며 나의 학생들을 가리키려고 합니다. 그들은 그 것을 알고 공부 결과도 조금씩 좋아집니다. 나의 직업은 생활 수단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.

##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 인가요?

성 바오로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'늙은 사람'이 아닌가 싶어요.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푸스 데이 회원이 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들의 실수를 발견하면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우리도 초라한 인간일 뿐이지요. 단 하느님 도움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.

---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 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 
ddeurang-gueng-piano-seonsaeng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ddeurang-gueng-piano-seonsaeng/)  
(2026-2-3)